

다르다

이사야 55:8-9

아직 새해라는 New Year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삶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새해에 들어서도 조금 다르게 삶을 살고 싶은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해를 걷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아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사 55:8-9)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좀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펼치시는 다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는 계획이었습니다.(삼하 7:1-3) 그런데, 그날 밤, 다윗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삼하 7:4) 그렇다면, 다윗의 꿈은 정말 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스스로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짓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더 큰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 결실과 결과가 우리의 눈에 빨리 확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며, 내가 일정을 짜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크시고 위대하심답게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 사이즈(God size)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민을 와서 오돈도손 잘 살아 보자는 소박한 꿈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꿈이 깨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깨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원수를 갚으려 애굽사람을 쳐 죽였습니다.(행7:22-25) 그 때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궁에서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 도망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80세가 된 모세는 민족을 구한다는 목적은 다 내려놓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적을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행7:30-34) 그리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출4:1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옛날에는 너의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론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내 방법, 내 주먹, 내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이고 교회에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일 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내 방법은 아닌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부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이 수없이 많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갔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전적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 계산과 컴퓨터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 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하는데, 여행 가운데 물이 다 떨어지자 부자는 오아시스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아들은 저 앞에 많은 무덤이 있어서 우리도 저렇게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살았다!”라고 외칩니다. 아들이 왜 그런지 묻자 아버지는 분명 누군가가 저 무덤을 가꾸었을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무덤을 볼지라도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소망에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부른 품꾼으로부터 늦게 와서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에게 까지 동일하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부름을 받은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근본이 어딘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는 잊은 채 일한만큼 율법대로 계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계산하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계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헤아리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는 총 일곱 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 거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 있으십니다. 은혜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삼시다.

○ 나눔의 시간 ○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어떻게 다른가요?
2.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4.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르심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